

## 살아오지 못하는 땅, 타클라마칸



그림 1. 타클라마칸

살아오지 못하는 땅, 타클라마칸! 이제 그곳을 향하려 한다. 그것도 그곳의 한 가운데를 관통할 예정이다. 이번 답사를 정할 때, 당연히 어느 곳이나 중요하지만 타클라마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다른 곳을 혹시 놓칠지라도 타클라마칸은 반드시 넘어야 했다. 물론 이미 그제부터 타클라마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행 중에는 어디부터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느냐고 하지만, 사막으로서의 타클라마칸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천산 기슭이나 곤륜산 기슭의 오아시스에는 사람들이 살았으니, 살아오지 못하는 땅, 타클라마칸은 아직이다. 다만 기후적으로는 이미 사막이다.

쿠차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사막 풍경이 계속 이어진다. 지도를 보면 그제 지났던 룬타이라는 도시로 가서 남쪽으로 향하는 사막공로를 타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가이드와 기사가 지름길을 택한다고 한다. 가보니 말이 지름길이지 지름길이 아니다. 지도 상으로 보면 훨씬 시간이 더 걸린 듯하다. 그러나 그 길이 그리 아쉽지 않았다. 늦어진다면 들 하나도 화가 나지 않았다. 하늘로 향하는 듯이 곧게 끝없이 뻗어 있는 도로, 변화 없이 이어지는 듯하지만 지겹지 않은 사막, 이런 것들이 가슴을 뛰게 하였다. 도대체 남들이



그림 2. 타클라마칸으로 들어가는 사막

말하는 타클라마칸에 이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중에 마치 어젯밤에 고요히 눈이라도 내린 듯 하얗게 덮여 있는 들판으로 보이는 플라야는 거의 일행을 경이에 빠지게 하였다. 물론 그 하얀 것은 염분이 올라온 것이다. 그 것을 카메라에 담는 것만으로도 이 번 답사의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림 3. 타클라마칸의 플라야

두 시간을 가까이 달린 후 드디어 사막공로 표시판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막의 입구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였다. 그저 과일을 파는 행상 하나가 있을 뿐이다. 사실은 말이 행상이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 같다. 뒤로 가보니 화장실도 있고, 바로 그 앞에 부엌 살림살이도 있고, 잠을 자는 곳으로 보이는 공간(나무 밑)도 있다.



그림 4. 타클라마칸 입구

이제 타클라마칸의 사막공로로 들어선다. 공식 명칭은 ‘塔里木沙漠公路’. 이 길이 완공되던 1995년에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도로이다. 어디든 사막의 도로는 모래에 파묻히기 마련인데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수상 이유이다. 사막공로를 달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지 알 수 있었다. 확실히 중국의 일면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럴 수 있는 지 알 수 있었다. 확실히 중국의

일면을 보여주는 길이다. 30여분을 달리니 그렇게 궁금해 하던 호양림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년 전에 왔을 때 호양림이 참으로 궁금하였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호양림. 인공 번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오로지 자연에 의해서만 살아남는다고 한다. 미친 듯 호양나무 숲으로 뛰어 들었다. 숨이 막혀왔다. 사막에서 내뿜는 열기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이다. 게다가 밀가루 더미처럼 폭폭 빠져드는 발이 먼지는 둘째로 하고 뜨거워 견디기 힘들 정도이다. 아마도 호양나무 숲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다 이 열기에 죽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 같다. 사막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항상 타협해야 하는 것 같다. 그 타협을



그림 5. 사막의 호양림

모르면 결국 뜨거운 열기와 갈증에 숨이 넘어갈 것 같다. 호양나무가 죽어 천년이 넘어 보였다. 우리 일행 셋이 둘러도 남을 만큼이다. 이렇게 건조한 곳에서 이 정도의 둘레라면 충분히 천년을 지냈을 것이다.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든 호양나무의 단풍이 장관을 연출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30여 분을 달렸더니 그 사막 한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있다. 여행 중 곳곳에서 식탁에 올랐던 작은 토마토 밭이다. 바로 이웃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있다. 얼마 전 스페인에서 보았던 코르크나무 밑에서 농사짓는 풍경과 아주 흡사하다. 뿔뿔이 호양나무가 있고, 과랗게 면화가 자라고 있다. 그 사이에 위구르인 부부가 잡초를 뽑고 있는 모양이다. 역시 우릴 보더니 반갑게 다가온다. 서로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이해하는 것 같다.

다시 30여 분을 달리니 마을이다. 가이드는 선택하라고 한다. 지금 점심을 먹을 것인지 4시간 후에 먹을 것인지를. 지금 먹어버리면 언제 숙소에 도착할 지도 모르니 참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이드가 사막을 넘을 준비를 한다. 이 마을은 타허향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고속도로의 휴게소 역할을 한다. 타클라마칸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가 이곳에서 주유를 하고 먹을거리를 챙기고 일

을 보는 것 같다. 우리도 역시 주유를 하고 먹을거리를 챙겼다. 먹을거리로는 낭이 최고인 듯하다. 가이드가 빵을 나누어 주는 사이 그만 타림(塔里木)강을 지나고 말았다. 참으로 원통하였다. 이제는 그냥 사막뿐이다. 잠시 만난 것은 죽어 천년인 죽은 호양나무 숲뿐이다.



그림 6. 호양림과 낙타풀



그림 7. 호양림과 면화 재배



그림 8. 타클라마칸에서 빵(낭)을 굽는 사람들

죽은 호양나무 숲을 지나니 진정 사막이다. 가도 가도 모래 언덕뿐이다. 내기고 싶은 보기 좋은 사구가 계속되었다. 가이드는 더 좋은 언덕이 있다고 할 뿐이다. 후에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다. 사막에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쫓으려 하면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타는 목마름 속에 죽음뿐이다. 기다리다 지쳐갈 무렵 가이드가 차를 세웠다. 1km를 걷자고 한다.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 무엇이 몸에 걸리는지 무엇이 앞을 가로막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었다. 모래 언덕의 정상은 향하여. 카메라와 물 한 병을 들고 죽어라 달렸다.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달렸다. 우리 일행이 어렵듯하게 쫓아오고 있다. 그런데 정상은 없었다. 그곳을 향하여 가면 역시 다른 목표가 기다릴 뿐이었다. 그래도 쫓아가 보았다. 그러나 역시 다른 정상이 똑 같은 모습으로 기다릴 뿐이다. 순간 깨달았다. ‘타협! 사막에선 타협해야해!’ 하고 머리속에서 메아리쳤다. 어디를 보아도 똑 같은 풍경이다. 하지만 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타협을 깨달아야 한다. 둘 쟁 날 깨닫지 않았던가! 끝이 없다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 사막인 듯하다. 그냥 쫓으면 무지개도 없다. 거기서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하다. 그 맛을 보고 돌아서야 한다. 한 시간쯤을 달리니 차를 세울 수도 있고, 물이 있었다. 물은 공로 가에 심은 나무

에 물을 주기 위해 마련한 양수장이다. 공로 가장자리로 나무가 자라고 있다. 길을 따라 양쪽으로 각각 폭이 30m는 족할 것 같다. 그 나무가 있어서 사막 한가운데 길이 온전한 것이다. 그러려면 나무가 잘 자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막에서 공로를 따라 매 4km마다 양



그림 9. 죽은 호양림



그림 10. 끝도 시작도 알 수 없는 사막의 모래 언덕



그림 11. 사막에도 생명이!

수장이 있다. 양수장에서 나무를 따라 수도관이 있고, 하루에 두 번씩(오전 7시와 오후 5시) 4시간 동안 물을 준다. 그런 양수장이 108개라고 한다. 그런 양수장에는 일 년에 8, 9개월 동안 사람이 거주한다. 말을 잊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홍류나무와 모래대추나무인 듯하다. 모래 언덕에 올라서서 보면 마치 길을 따라 오아시스가 끝없이 이어지는 듯하다.

우리가 들른 양수장은 31번 양수장이었다. 양수장에는 중국석유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이 길이 석유개발을 위해서 중국석유에서 만든 길이고 역시 관리도 그들이 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선발한 사람들이 양수장을 지킨다 한다. 우리가 들른 양수장에는 쓰촨성에서 왔다는 한족 부부가 있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옆집에서 놀러와 있었다. 같은 고향이란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울까! 우리 일행을 거의 미친 듯 반가워할 정도인데, 그 집에서 과일을 씻고 먹었다. 아주머니는 한 시도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그림 12. 사막 공로를 살리기 위한 양수장



그림 13. 양수장을 지키는 만난 한족 여인



그림 14. 오아시스로 보이는 도로

과일을 먹고 일어서니 오후 3시 반이다. 언제나 점심은 먹을 수 있을는지? 다시 계속 달렸다. 끝없이 같은 경관이 이어진다. 한 시간여를 달렸을까 드디어 마을이다. 따중이라는 마을이다. 따중은 탐리목의 중간이란 의미라한다. 여기서 길이 갈린다. 지도를 보니 거의 사막 한가운데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는 민풍과 치에모로 길이 갈린다. 점심은 비빔국수인 듯하다. 국수가 나오고 뭘지 비벼 먹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나왔다. 점심을 먹고 일어서니 오후 5시 반이 다되었다. 그래도 해는 중천이고 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다시 민풍을 향하여 끝없이 달렸다. 가이드는 야통구스 마을을 가기 싫은 모양이다. 그 마을은 타클라마칸에서 가장 작은 마을로 얼마 전까지도 오지였다고 한다. 꼭 둘러보고 싶다. 마을 입구에서는 해가 어느 정도 기울어 모래언덕이 훨씬 볼만하였다. 시간이 7시 반에 가까워졌다.

야통구스 마을은 오지였다.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도 느긋하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아저씨가 급한 우리 마음을 알 길이 없다 그저 느긋하다. 마을에 이르니 온 동네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겼다. 가이드가 말한 군부대는 보이지도 않았다. 가기 전에 겁주길 ‘군부대가 있으니 사진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군인은커녕 반가워하는 사람들뿐이다. 어느 집을 둘러도 반가워한다. 요즘 약초를 재배하여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 어느 책엔

가 있던데 그런 모양이다. 가이드 말과는 달리 집안 어디를 보아도 부유한 냄새가 풍겼다. 집도 대부분 새로 지은 것이다. 정부에서 지은 내진 설계라고 붉을 글씨로 쓰여 있다.

야통구스를 나오는 길에 마음껏 모래 언덕을 즐겼다. 이제 아쉬울 것이 없다. 타클라마칸



그림 15. 사막의 갈림길(따중)



그림 16. 해가 기울는 타클라마칸



그림 17. 야통구스의 아이들



그림 18. 해가 기우는 타클라마칸

도 넘었고, 그곳의 오지 야통구스도 보았고, 타클라마칸을 다 본 것 같다. 이제 숙소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쉬울 것이 없었다. 해가 멀리 모래 언덕 사이로 넘어 가고 있다. 그래도 즐겁다. 아마도 모처럼 일행이 마음껏 모래 언덕을 즐겼을 것이다. 모래 언덕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어 보였다. 모두가 똑 같이 행동하였다. 심지어 비박을 하면서 별을 보자고도. 그러나 별은 볼 수 없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거의 황사가 날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민풍으로 달렸다. 사막 건너 첫 숙박지이다. 민풍 역시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 길이 어둑 어둑하는 밤 10시에 도시 입구에 도착하였다. 공간이 다시 우릴 붙든다. 피나 시간이 흐른 뒤 그곳을 통과하였다. 멀리 불빛이 보이는데 그곳이 민풍이라고 한다. 민풍은 해발 1,405m이다.



그림 19. 떠나야 하는 타클라마칸